

# 건설 침체 뚫는다... 승강기 유지보수·스마트물류 ‘쌍끌이’

## 17 현대그룹



### ◆ 현대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둔화에 유지보수·신사업 대응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 승강기 사업의 핵심 계열사다. 1984년 설립 이후 국내 승강기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고 현재 국내 1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튀르키예 등 법인과 60개국 이상의 대리점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 기반을 갖췄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국내 신규 설치 시장 둔화에 대응할 기반으로 꼽힌다. 중동과 유럽, 동남아 시장에서 수주 레퍼런스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해외 사업은 그룹 수익 구조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국내 1위 국내 건설경기 부진에 시장 위축 수익성 방어, 유지보수 등으로 대응

AI·IoT 등 기반 ‘MIRI’ 서비스 오픈 API 기반 승강기-로봇 연계 고층용 승강기 모듈러 공법 상용화 UAM 인프라로 기술 적용범위 확대

국내 승강기 설치 시장 위축은 실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 2조4695억원, 영업이익 2096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4%, 7.2% 줄었고 올해 1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 16.3% 감소했다. 2025년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전년보다 25.9% 줄면서 신규 설치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제품 고도화와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유지보수와 해외 사업 비중을 높여 국내 신규 설치 시장 둔화에 대응하고 있다.

유지보수 사업은 신규 설치 부진을 완화할 기반으로 꼽힌다. 신규 설치는 건설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만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은 기존 설치 대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AI·IoT·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유지관리 서비스인 ‘MIRI’를 통해 승강기 원격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승강기와 로봇을 연결하는 사업도 확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픈 API를 기반으로 KT, LG전자, 우아한형제들 등과 승강기-로봇 연계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뉴빌리티와 자율주행 로봇과 엘리베이터 연동 서비스 및 표준 개발 협력에 나서며 승강기를 스마트빌딩과 물류 서비스를 잇는 수직 이동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건설 현장과 미래 모빌리티를 겨냥한 신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4월 고층용 승강기 모듈러 공법 ‘이노블록(ENOBLOC)’을 상용화했다. 승강기 주요 구조물과 부품을 공장

현대그룹이 승강기와 물류자동화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이동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부진으로 승강기 신규 설치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는 유지보수와 고부가 승강기, 로봇 연동,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대무브스는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와 디지털트윈 기반 운영 기술을 앞세워 제조·물류 현장의 이송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두 계열사의 사업이 로봇·스마트빌딩·미래 모빌리티 수요와 맞물리면서 현대그룹이 건설경기의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이동 인프라 시장에서 성장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1 현대엘리베이터 전경. 2 현대엘리베이터가 세계 최초로 모듈러공법을 통한 고층건물 승강기 설치·상용화에 성공했다. 3 현대엘리베이터 직원들이 승강기를 점검하고 있다. 4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 본사에서 로봇배송서비스를 운영한다. 5 현대무브스 청라 R&D센터. /현대엘리베이터·현대무브스

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 단축과 시공 안전성 개선을 겨냥한 기술이다.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센터파크 현장에서 27층형 적용 실증과 품질 검사를 마치고 20층 이상 공동주택 시장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사업도 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직 격납형 버티포트 ‘H-PORT’를 통해 승강기 기술의 적용 범위를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로 넓히고 있다. H-PORT는 UAM 기체의 이착륙과 이동, 충전, 격납 기능을 수직 구조 안에 배치한 개념으로, 넓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충주 본사에 3층 규모의 H-PORT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이며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현대무브스, 스마트물류로 제조·물류 현장 공략

현대무브스는 현대그룹의 물류자동화 사업을 맡고 있다.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과 자동화 설비 공급이 핵심 사업이다. 무인인송로봇(AGV), 자율주행 모바일로봇(AMR) 등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제조·물류 현장의 이송과 보관, 출고 과정을 효율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무브스의 경쟁력은 개별 장비보다 물류 공정 전반을 묶어 설계·운영하는 통합 역량에 있다. 물류센터와 생산 공장에서는 입고부터 보관, 피킹, 분류, 출고까지 자동화 수요가 커지고 있어 창고관리 시스템(WMS), 창고제어시스템(WCS), 로봇 제어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로봇 기반 스마트물류 기술도 확장하고 있다. 현대무브스는 올해 AW 2026에서

AMR 군집 운용, 오피스터, 저상형 AGV, 엘리베이터 연동형 달리바리 로봇, 3D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 관제 기술 등을 선보였다. 물류 설비의 이동·보관·분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앞세워 자동화 사업을 하드웨어 공급에서 운영 최적화 영역으로 넓히는 모습이다.

해외 사업은 기존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대무브스는 한국타이어 미국·유럽 공장 물류자동화 수행 경험을 확보했고, 미국·헝가리·캐나다 등에서 물류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북미와 유럽 제조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생산 효율화 요구가 커지는 만큼 통합 물류자동화 솔루션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주잔고도 향후 매출 전환의 기반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무브스의 수주잔고는 3732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물류자동화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존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고 지난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회성 총당금 영향이 줄어들 경우 수익성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현대무브스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963억원, 385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무브스, 스마트 물류센터 ‘핵심’ 물류공정 전반 통합 설계·운영 WM, WCS, 로봇제어 기술 결합 기존 경험 기반 해외사업 확대도 지난해 3732억 수주, 자동화 견인

### ◆ 수익성 회복·해외 리스크 관리가 관건

현대그룹의 이동·물류 솔루션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변수도 남아 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승강기 신규 설치 수요 위축이 이어질 수 있고, 해외 시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도 과제로 꼽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별도 기준 사업 계획 대비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수주 실

적이 모두 전망치를 밑돈 만큼 올해 제시한 사업 계획의 달성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현대무브스 역시 해외 프로젝트 확대 과정에서 수익성 관리 부담을 겪은 바 있다. 2025년에는 해외 사업 관련 일

회성 총당금 등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한 만큼 북미·유럽 등 해외 수주 확대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AW 2026과 MODEX 2026 등 글로벌 전시 활동이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지도 향후 수주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평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승강기 제조·유지보수와 물류자동화 사업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건물과 산업 현장의 이동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신규 설치 시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유지보수, 해외 승강기, 스마트물류 수주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성장성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